U대회 실사 시민 환영단 10만명 뜬다

■광주시 실사 대비 전략·행사 계획 확정

국빈급 예우 대대적 환영 물결 유치 열기 전달 '감동 실사'로

광주시가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유치의 분수령이 될 실사단의 광주 방문(5월 1~5일)을 앞두고 실사 대비 전략과 환영행사 계획을 13일 확정, 발표했다.

시는 실사단에게 경기장 시설과 선수촌 조성 계획 등 광주의 강점을 집중 소개하는 한편 국빈급 예우와 시민 환영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대회 유치열기를 전달할 방침이다.

◇실사단 일정 및 실사내용=실사단은 스테판 버그 스웨덴 집행위원을 단장으로 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실사단은 1일 광주공항에 도착한 뒤 광주시민 2천여명의 환영 속에 실사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2일에는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 도시 여건을 토대로 한 1차 프리젠테이션을 갖는다. 3일에는 조선대와 호남대 등 대학 스포츠 시설과 월드컵 경기장 등 스포츠 인프라를 점검한 뒤 대회 개최 역량을 주제로 한 2차 프리젠테이션을 받으며, 4일에는 의료서비스와 안전, 정보기술을 등을 담은 3차 프리젠테이션 후 헬기를 타고 광주투어에 나선다.

실사단은 시민들의 유치열기, 대회 유치의 적합성, 스포츠 인프라, 중앙정부의 관심 및 지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13개 종목에 참가하는 1만여명의 선수단이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 시설과 숙박·교통시설, 각 시설간의 교통 접근성도 주요 평가 대상이다. 도시의 정치적 법적, 재정적 환경과 출입국 관리 및 세관절차, 숙박시설도 점검 대상이다.

◇실사단 맞이 전략 및 환영 이벤트=광주시는 국빈급에 준하는 환영·영접행사로 실사단에 '감동'을 전달하고 국제적인 스포츠 개최도시로서 광주시의 역량을 보여줄 방침이다.

우선 실사단의 광주공항 도착 순간부터 출국 때까지 공항과 국립 5·18민주묘지, 시청, 만찬장, 경기장 등에 10만명의 시민 환영단을 배치, 감동의 물결을 연출할 계획이다.

시민 환영단은 각 장소에서 실사위원 국기와 캐리커쳐 피켓을 들고 환영물결을 연출한다.

또 실사단 방문 이틀째인 2일 오후에는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대학생 3만명을 주축으로한 유치기원 시민대축제도 열린다.

특히 시는 경기시설과 광주시의 스포츠 인프라를 소개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첨단 IT기술로 제작, 광주가 대회 유치의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할 방침이다.

여기에다 주경기장 주변에 1만1천여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2천400여 세대 규모의 선수촌 건설계획과 800실 규모의 특급호텔 신축 계획도 제시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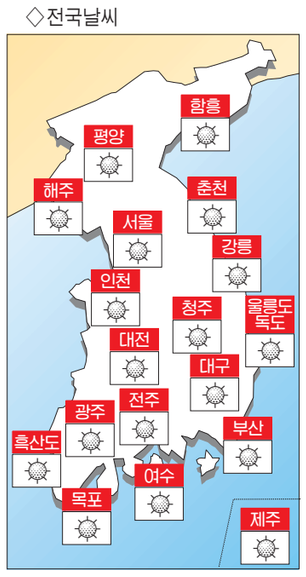
일교차 조심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맑겠다.

4월 14일 (음 3월 9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맑	음	7~23℃
목 포	맑	음	7~20℃
여 수	맑	음	10~18℃
완 도	맑	음	7~21℃
구 례	맑	음	4~23℃
해 남	맑	음	4~22℃
장 흥	맑	음	4~22℃
고 흥	맑	음	6~21℃
순 천	맑	음	4~24℃
영 광	맑	음	5~20℃
진 도	맑	음	5~23℃
전 주	맑	음	6~22℃
남 원	맑	음	4~23℃
흑산도	맑	음	7~15℃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m
먼바다=북서~북동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 파고 0.5~1.0m
먼바다=북서~북동 파고 0.5~1.5m

목 포 밀물 09:28 21:46 썰물 01:48 15:19
여 수 밀물 04:49 17:32 썰물 11:33 23:20

▲해뜸 06:02 ▲해짐 19:04 ▲달뜸 13:08 ▲달짐 02:4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5(화)	16(수)	17(목)	18(금)	19(토)	20(일)
날 씨						
최저/최고	8/23	10/20	10/17	9/23	9/24	9/25

"국민 속이는 대운하 철회하라"

광주·전남 교수 반대 모임 결성

광주·전남지역 대학 교수들이 한반도 대운하 반대 모임을 결성했다.

지난달 25일 전국 70여개 대학 교수 1천800여명이 모여 만든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교수들의 모임'의 지부 성격을 갖는다. 전국 모임 당시 240여명 가량이었던 이 지역 참여교수의 숫자는 13일 현재 289명으로 늘었다.

'한반도 대운하 반대 광주·전남 교수모임'은 지난 11일 오전 전남대 인문대학 교수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타당성 없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전면 재검토 및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영산강 뱃길복원이라는 미명하에 물류운하를 추진하려는 의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예정된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 지역의 녹색 이미지에 맞는 기반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강바닥을 들어내 바닥은 물론 강둑까지 콘크리트로 발라버리는 토목건설 사업을 마치 아름다운 강을 만드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광주·전남 교수모임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토와 환경 파괴, 국민간 혼란과 갈등 등을 가져올 것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한다"며 "전국 교수모임에 소속된 '운하연구교수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토론회와, 세미나, 공개강좌 등을 통해 운하의 본질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나만의 책갈피 만들어요" 제44회 도서관 주간(12~18일)을 맞아 광주무등도서관에서 지난 12일 열린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책갈피를 제작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광주지역 시립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내일을 여는 행복한 즐겨찾기!'를 주제로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가 펼쳐진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영암항 이름찾기' 감정싸움으로

현수막 뜯어낸 목포항 직원 등 3명 입건

영암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영암항 이름찾기 운동' 이 현수막 훼손으로 이어지는 등 미묘한 갈등을 낳고 있다.

영암군 재향군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암군협의회 등 영암군 82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영암항 분리 주권 찾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고, 대불, 용당, 쌍용 부두 등 6개 부두를 영암항으로 분리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6개 부두는 1968년 항만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행정구역상 영암군 삼호읍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목포항으로 불리고 있다.

이에따라 추진위는 영암읍 등 곳곳에 목포항과 영암항의 분리를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범 군민 운동으로 확신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영암읍내 일부 현수막이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일이 발생해 추진위가 영암경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해 훼손자 3명을 찾아냈다.

영암경찰은 지난 11일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목포항 소속 항만회사 직원 전모(33)씨 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사회단체가 설치한 목포항과 영암항의 분리를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 27개를 지난 2월 14일 새벽 2시부터 2시간 동안 영암읍을 돌면서 훼손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목포항 대불부두 등 6개 부두가 영암항으로 분리될 경우 작업량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해 분리 여론 조성을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표기자 lucky@

광주 '아동안전 지킴이 집' 644곳 지정

광주지방경찰청은 유괴와 성폭력 등 어린이 대상 강력범죄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광주시내 644곳에 '아동안전 지킴이 집'을 지정해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아동안전 지킴이 집'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통학로와 놀이터 주변 문구점·편의점·약국 등으로 이들 업소는 어린이가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임시 보호하고 경찰과 신속하게 연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북구가 300곳으로 가장 많고 ▲서구 130곳 ▲광산 96곳 ▲남구 73곳 ▲동구 45곳 등이며, 상가 유형별로는 ▲문구점 216곳 ▲상가 172곳 ▲24시 편의점 75곳 ▲약국 13곳 ▲기타 168곳 등이다.

경찰은 이들 업소에 '아동안전 지킴이 집'임을 표시하는 로고를 부착하고 상가 앞은 스탠드형 표지판을 설치하는 한편 지구대와 핫라인 등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범죄 예방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로스쿨 등록금 당초보다 더 비싸진다

서울 절반 이상이 인상…전남대는 계획대로 유지

서울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의 절반 이상이 당초 계획보다 등록금을 높게 책정키로 했다. 전남대 로스쿨 역시 등록금 인상을 고려했으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처음에 제시했던 수준으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13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정원 120명을 신청했다 60명을 배정받은 경희대는 연간 1천600만원(학기당 800만원)의 등록금을 책정했으나 학기당 880만원으로 80만원 인상했다. 연간 800만원으로 책정했던 서울시립대는 950만원으로 올렸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계획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은 당초 신청했던 정원보다 적은 인원이 배정되면서 로스쿨 운영에서 발생하는 적자폭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간 1천200만원으로 책정했던 서강대의 장덕조 법대학장은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긴 힘들지만 올리는 건 확실하다. 그래도 학기당 1천만원까지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건국대(연 1천600만원), 고려대(연 1천900만원), 서울대(연 1천350만원), 성균관대(연 2천만원), 한국외대(연 1천600만원) 등은 당초 계획대로 등록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연간 등록금을 950만원선으로 정할 방침인 전남대 송오식 법대 부학장은 "전남대 로스쿨은 사회적 취약 계층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명으로 정했다"며 "등록금 인상을 심각하게 논의했으나 전남대 로스쿨의 상징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계획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

대선 후보 비방 목사 광주지법,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13일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목사 김모(53)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자신이 목사로 있는 광주시 남구 모 교회 관계자에게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아!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